

변모하는 ITU(국제전기통신연합)

지난해 ITU의 행정회의는 연합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고위위원회(H. L. C : High Level Committee)의 일련의 권고사항을 승인하였다.

이 권고는 장래의 도전에 대하여 전략적 계획능력의 증진을 비롯하여 일상적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.

H. L. C 는 ITU 가 새로운 전기통신 환경속에서 계속 그 탁월성을 견지하기 위한 조직의 개개 그리고 모든 레벨에서 우수한 전략적 계획과 우량한 관리의 필요성을 적절히 지적 권고하였다. H. L. C가 권고한 전략계획·운용분석·내부감사단이 지금 설립중에 있어 이번 가을부터는 완전 가동하게 될 것이다. 이 조직에 대한 설립의 중요한 근원은 “세계 전기통신 자문회의”(WTAC : World Telecommunications Advisory Council) - 이것은 처음에 업무자문토론회(Business Advisory Forum)라고 불리워진 것으로 역시 H. L. C의 권고에 의해 설립된 것임 - 로부터 나온 것이다.

세계전기통신 자문회의는 ITU의 전기통신산업의 고위급 대표들이 고위위원회(H. L. C)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ITU의 조직과 기능을 검토할 필요성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이 조직의 회원으로서는 세계각국의 전기통신의 지도자적 인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전기통신 환경의 공공 및 사설부문으로부터의 전략적 자문을 ITU에 제공할 것이다. 또한 그 활동적인 특성에 비추어 연합의 주요 활동을 어떻게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ITU에 권고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그 목적은 범세계적 전기통신망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상태를 고찰하고 통신망의 성장을 감시하여 일류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보기술의

조화로운 세계적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권고사항을 작성하는 데 있다.

WTAC는 실무위원회를 설립하여 21세기의 경제적·사회적 발전에 있어서의 전기통신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개발하게 될 것이며, 이와 같은 비전은 전략적 계획에 있어, 또 1994년 “교-또”에서 열리는 다음 전권위원회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.

덧붙여 WTAC는 전기통신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개발도상국의 정부나 금융기관들에게 일깨워 주도록 노력할 것이다.

앞으로 5개월이 지나면 특별 전권위원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행정 및 계획의 문제 이상으로 H. L. C로 부터의 기타 권고사항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. 그 목적은 ITU의 조직과 관장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며 변화하는 전기통신의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.

그 중에는 CCITT의 역할과 CCIR의 일부 활동을 통합하므로써 ITU의 “표준화 부분”을 창출하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. 이렇게 되면 ITU의 모든 표준제정활동이 단일기구로 합쳐지게 될 것이다.

이 권고사항이 승인될 경우 ITU의 첫 표준화 회의를 내년 3월에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와같이 하여 1992년은 낡은 ITU의 종말과 우리들을 21세기로 진입시킬 조직으로서의 새로운 국제전기통신연합(ITU)의 탄생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.

이 글은 Telecommunication Journal 1992년 7·8월호에 게재된 ITU 사무총장 Pekka Tarjanne의 글을 번역 소개한 것이다.